

“대학 입학부터 박사까지 최적 경로로”

GIST, ‘패스트 트랙’ 학위 연계과정 신설

- ‘GIFT 프로그램’, 학사과정부터 석사까지 5년, 박사까지 7년 만에 학위 취득할 수 있어... 대학원과정 변경(석사→석박통합)도 허용
- “상위 학위과정 입학 준비 필요 없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하도록 ‘아우토반’ 개통”... 첫 선발자 모집 6.28.(금)까지 서류 접수, 오는 7월 본격 선발 예정



▲ 학위연계과정 모집 공고 포스터(좌), 대학원 과정변경 모집 공고 포스터(우)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보다 효율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입학 후 7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혁신적 학위 연계과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.

GIST는 ▲ 학위 연계과정(학석연계, 학·석박통합연계)과 ▲ 대학원과정 변경(석사→석박통합)을 포함한 ‘패스트 트랙’을 도입해 이달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8월 중 최종 선발하여 학위 연계과정은 내년 1학기부터, 대학원과정 변경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운영에 나선다.

특히 학·석연계과정 및 학·석박통합연계과정인 ‘GIFT(GIST(Graduate) Integrated Fast Track)(이하 GIFT)’는 학사과정 중 취득한 대학원과정 교과과목 학점의 중복 인정(15학점 이내)을 통해 학사과정 3.5년을 포함하여 수업연한 기준 7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 프로그램이다.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조기 졸업과 졸업 요건 이수 등을 모두 충족하면 가장 빠른 경우 박사과정까지 1년을 더 단축할 수도 있다.

박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'GIFT'를 통해 학사과정에서부터 대학원 교과학점 이수와 연구, 논문 작성 등을 수행함으로써 석·박사 학위를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GIST는 **4학기 이상을 마치고 평점 평균 3.7 이상(4.5 만점)인 학사과정 재학생**을 대상으로 'GIFT 프로그램'에 진입할 학생을 **매 학기 1회 선발**할 예정이다.

선발된 학생에게는 **입학 장려금(1,000만 원)과 중복 학점(최대 15학점) 인정**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, 상위 학위과정 입학에 위한 별도의 준비 없이 학위 취득에 최적화된 경로를 밟아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.

이와 함께 GIST는 **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석박통합과정 '중간 진입'을 허용하는 '대학원 과정변경(석사→석박통합)' 학사제도를 도입**했다.

이 제도는 석사과정생의 **박사과정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**함으로써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.

홍석원 교무처장은 "새로운 학위과정 프로그램은 **과학기술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학생이 마음껏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도록 '아우토반'을 개통하는 것**"이라며, "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**연구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**"고 밝혔다.